

## “ 반박할 수 없는 질문들 ”

### ■ 이종윤 원로목사

사람들은 최고로 기쁠 때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대로 죽어도 좋다, 미치겠다 또는 죽겠다는 말로 표현한다. 최고로 기쁜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죄인 된 우리를 창세전에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니 무슨 말 하리요 했다. 그래서 사도는 다섯 가지 반박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짐으로 성도의 믿음을 확실케 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는 많다. 신학적으로는 세상과 정욕을 쫓는 육신 그리고 악마 사탄이 우리의 원수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신은 죄의 씨를 품고 있어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덤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밖에서 오는 원수도 있지만 내 안에도 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충분히 가능한 질문이다. 바울은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 것이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편에 계시다면 우리를 넘어뜨릴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어떤 공격과 비난과 유혹이 와도 지금도 내일도 영원히 이길 것이라 한다.

둘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죄가 많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나에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확신의 표현이다. 시험을 당해도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친구가 필요할 때 나의 참 친구가 되어 주시고 삶의 방향과 방법을 잃어버리고 헤멜 때 도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훈계하신다.(시32:8)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대신 소망과 환희를 주신다.

셋째,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 한 이를 누가 고발하리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이는 불에 그슬린 나무라 하시며 그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다.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그를 더러운 자라 하겠는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자가 되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정죄할 자가 없으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한다.

넷째,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했다. 누가 고발하리요 한 것과 비슷하지만 실은 다르다. 예수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의 태도가 바뀔 수 있겠는가 물으면서 누가 정죄하리요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 위해 간구하신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보혜사로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로 하늘에서 자신의 보혈을 보이시면서 다시 저주가 없도록 우리 위해 간구하신다. 그리고 성령은 다른 보혜사로 지상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 같은 우리를 누가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는가?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다섯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했다. 우리를 등산가의 등 뒤의 밧줄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묶어 안전을 보장 받게 했다는 것이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지게 하는 적들이다. 이것들을 넉넉히 이겨야 할 이유가 있다.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이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끌어내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게 한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울은 마침내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생에 들어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의 실체를 복음이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확실한 것은 없다. 반박할 수 없는 이 같은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

-한국장로신문 [제 1300호] 2011년 12월 10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acher : Rev. Euichang Kim, PhD] [Presider : Deacon Kichan Yoo]
* Call to Worship .....	John 4:24 .....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	Congregation
* Doxology .....	1 .....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	Mrs. Lumie Hwang
Hymn .....	2 .....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	1 Cor 9:23-27 ..... Presider
Welcome/Fellowship .....	Congregation
Offering .....	Congregation
* Offering Hymn .....	50 .....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	Rev. Euichang Kim
Sermon .....	“Strict Training” ..... Rev. Euichang Kim
* Hymn .....	488 ..... Congregation
* Benediction .....	Preacher
* Lord's Prayer Song .....	635 .....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b>우리의 비전</b>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b>부 목 사</b>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b>교육전도사</b> 김은숙 박미라	<b>협동목사</b>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b>선 교 사</b> 전광혜(사이사), 이은준(김해정, 영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물(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아사, 비스타파: 사지, 에누(인도), 정상진(홍성임(필리핀),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미디기스 카르), 김용진(황경해(말라위), 김영호(서항정(러시아), 허창범(한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투니노동자), 팔리몬, 프르산토, 수레시, 수바식, 이경연, 일로롱, 비사누(뽀도, 보다소프, 린롱, 수란준(방글라데시), 박영성(총회), 강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영철(근교)
--	---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b>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b>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iseoulchurch.or.kr/
--	--

## “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

### ■ 삼상 11:1-15

인생에 굴곡이 있듯이 신앙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특히 구약에는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을 상승기와 하강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삼손,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모두 신앙심이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들도 상승기에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때가 있었으나 반대로 하강기에는 스스로없이 죄악을 저질렀고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본문의 엘리 제사장은 인생의 하강기가 강조되어 게으르고 무능한 제사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의 업적에 가리어서 유독 그런 모습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1.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사울은 엘리 제사장 왕지망 하강기가 강조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의 훌륭한 업적까지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왕이 되기까지, 혹은 왕 초창기까지는 훌륭한 업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 벌인 첫 번째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울은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과 사무엘과 사울만 알고 있었을 뿐 사울은 백성들로부터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그의 존재감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당시 요단 동편에는 길르앗 아베스라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암몬 사람들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을 위협하였으며, 당시 암몬 지도자인 나하스의 침공을 받은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은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산이 없음을 미리 알고 조약을 맺으려고 했는데, 이 조약은 상호 평등조약이 아닌 길르앗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빼야 한다는 굴욕적인 항복 선언이자 충성 맹세였습니다.(1-2절)

#### 2.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분노케 하다

당시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부음을 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왕으로 선택되었음에도 자신이 왕으로써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도록 용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까지 농사를 짓고 있던 사울은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모욕적인 상황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 강한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모욕을 당하도록 목인하지 않으셨습니다.(4-5절) 사울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욕과 고난을 당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 분노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나하스는 히브리어로 뱀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의 대적을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엡 6:12) 진정으로 우리가 상대하며 싸워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을 분노로 가득 채우려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같은 세력들과 싸우려면 사울처럼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합니다.

#### 맺는 말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국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후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포용하며 수용했다고 했습니다.(14절)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전쟁 전의 사울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으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경제의 주도권과 권위를 잡고 승리자로써의 겸손함과 포용의 자세를 보이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랑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권력이나 금력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을 저주하며 해치려는 적조차도 포용할 줄 아는 포용력이야 말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의 지도자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변질되고 파멸의 길로 들어가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변하자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이 그를 장악하고 사울 스스로 번뇌케 하였습니다. 우리도 초창기 사울처럼 국가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려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 윤동명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하인선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차도훈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인 도 자

오후 5시 ·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목 도 ..... 다 함 께

성 시 ..... 시 91:1-3 ..... 인 도 자

찬 송 ..... 86(86) ..... 다 함 께

기 도 ..... 황병석 집사

성 경 ..... 갈 1:1-10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다른 복음" ..... 설 교 자

\* 찬 송 ..... 93(93) .....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 한은미 권사

성 경 ..... 삼하 4:1-12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사울의 짐은 점점 약하여 가라" ... 설 교 자

## 새 벽 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김양언 박수강 김복희2

설 교 ..... 조원영 목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홍혜란	윤주일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삼상 11:15)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 회 소 식

### ☛ 모 입

1. 살롬 권사회 월례회 / 18일(주) 오후 3시 30분 101호(웨스트민스터홀)
2. 에스더 전도회 월례회 / 18일(주) 3부 예배 후 101호(웨스트민스터홀)
3. 학부모기도회 / 24일(토) 새벽기도 후 102호

###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2.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최용준(한방), 이경진(성형외과)입니다.  
다음주 상담은 김동건(치과), 오병호(피부과)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728-5939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p>앞면에서 계속</p> <p>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 전화 예약 010-2376-3892</p> <p>14.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신 윤동녕 목사(서울장신대 구약신학 부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p> <p>☛ 결 혼</p> <p>1. 유한영 군(7교구 유형석 집사, 계오복 권사의 장남)과 김보연 양(9교구 김기섭, 백숙자 씨의 차녀) / 8월24일(토) 오전 11시 더채플앳칭당 3층 커티지홀(421-1121) / 강남구청역(7호선, 분당선) 3-1번 출구</p>
---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76명	216명	190명	1,282명	123명

## 수입, 지출 내역보고(8/11)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8월11일	헌 금	26,403,000	
	교회학교운영비		190,000
	장 학 비		1,676,500
	구 제 비		300,000
	출 판 비		250,000
	복리후생비		270,500
	통 신 비		3,600
	차량유지비		442,900
	소모품비		213,870
	환경유지비		55,200
	수선유지비		297,000
	식당운영비		943,390
	합 계	26,403,000	4,642,960